

서평(Review)

“이해를 위한 신약성서 연구”를 읽고

저자 : Robert. G. Hoerber

서평 : 하재성(원3)

본 서의 저자인 Robert G Hoerber 박사는 위성턴 대학에서 고전어를 전공하여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미조리주 풀톤 시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에서 고전어 담당 교수로 20여년동안 가르쳤고, 후에 특별 공로 명예교수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1975년부터는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루터교 컨콜디아신학교에서 신약성서 해석학 교수로 복직해 왔다.

이 책은 *Reading the New Testament for Understanding*이라는 원제의 책을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 수학하면 김영봉씨가 1988년에 번역하였다. 책의 첫 부분에는 본서의 저자인 Hoerber 박사의 친구이며 동료인 지원용 교수의 추천서가 나와 있으며, 저자의 서문으로 시작하여 신약 성경 각권에 대한 고찰이 나오고, 요한의 복음서와 서신들,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여 에필로그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본서는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연구반이나 개인적인 성경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이며, 이 책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성경 연구의 한 방법을 가르칠려는 것이다. 즉 본서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연구의 과제나 요구사항을 성실히 따를 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성경적인 결론들을 공유하려고 저자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저자가 가장 먼저 제의하는 성경 읽기의 한 방식은 단순한 지식이나 즐거움을 얻기위한 것이 아닌, 이해의 목적으로 하는 읽기 방식이다. 그는 행간을 읽는다는 아들러 교수의 독서 개념, 즉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백까지도 함께 읽어내는 방법을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적용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작업은 단순한 정보의 획득이나 유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 인간 사이의 보다 심오한 의사소통을 이루는 생동감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그가 제안하는 “이해를 위한 성경읽기”는 그 자체에 어떤 의미나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만큼, 그리스도

인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본서를 통하여 신약 성경 전체를 섭렵하고 있는 만큼, 예리한 신학적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제시하는 것이나, 쟁점이 되는 논쟁들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대안들을 중요시하여, 학문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전개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학적 관심사에 몰두하는 신학도들에게는 큰 만족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성경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낼려는 충분한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으며, 성경 본문이 우리와 갖는 연관성을 찾기 전에 반드시 본문의 저자가 자신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언약의 관점에서 구약으로부터 비롯되는 성경의 통일성을 간파하지 않고 있으며, 구약의 성취로서의 신약에 대한 관점을 복음서를 비롯한 전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깊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각 성경들의 주제선정과 내용 분석도 예리하고 심도있게 제시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자의 중요한 시도들 중의 하나는, 각 성경들을 기록된 당시의 상황에서, 본래적으로 기록된 의도와, 문제가 된 신학적 난제들의 근원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의 태도는,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제쳐두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맷세지에만 골몰하는 20세기의 신학흐름을 거스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성경적 관점으로 성경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바람직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자는 신약 각 권에 대하여, 저자 자신의 고유한 주제들을 설정해 놓고 있다. 저자는 깊은 말로 표현된 각 권의 주제를 통해서 그 성경 자체의 의도와,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대하여, “예수와 새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세웠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의 기록 의도와 본래의 대상, 그리고 그 맷세지가 무엇인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각 성경의 가치와 저작자, 역사적 상황과 신학적 주제, 연대기와 구조, 특징들을 발견하게 하고자 할 때, 저자는 먼저 성경안에 흘어져 있는 여러가지의 연관된 근거들을 먼저 찾고,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만든다. 또한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저자는 뛰어난 상상력으로 치밀하게 상황을 묘사해 나가고 있으며, 각 교회들과 저자들의 형편에 대하여 무리없는 성경적 조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같이 멈추

며, 지나친 사색과 사변으로 인한 주관주의적 해석에 자신의 흐름을 막거나 두지는 않는다.

이 책의 큰 특징중의 하나가 용이한 이해와 학습을 위한 도식화된 내용의 전개이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 애굽으로 가신 예수를 통해 옛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비교하는 성경신학적 비교를 간단하게 표현했으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장과 바울의 장에 대한 구조적 유사성을 도식으로 쉽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도식화는 결코 형식을 맞추기 위한 부적절한 내용 분할은 아니다.

그는 각 권의 구조에 대하여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다. 그것은 성경 저자들의 신학적 의도와 매우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내용 분해 방법을 단적인 다른 예와 비교한다면, 구약 창세기를 토대로 나누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각 성경에서 사용되는 중심되는 단어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성경 저자들의 신학적 상황들을 예의 주시한다. 그리고 성경 저자들의 성경을 기록한 동기를 파악한다. 그래서 그에 근거한 타당성 있는 성경 구조를 쉽고 분명하게 제시한다.

저자는 성경 각 권에 신학적, 신앙적 위치를 전체 성경의 위치에서 파악해낸다. 그 주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성경 전체의 중심주제에서 찾아내려고 한다. 이것은 각 성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한 저자의 작품인 성경의 통일성과 하나됨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 자체가 성경의 연구와 이해를 위한 것인 만큼, 저자는 각 권의 내용 이해를 위해, 독자가 먼저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성경의 관련 구절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어서 저자의 입장은 다시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책을 엮어가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성경 자체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을 키워갈 수 있는 연구 방법을 독자가 익힐 수 있도록 하려는 저자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